현재 프로세스 (as - is )

1. 최초 지자체에서 데이터 취합

2. gooddata.co.kr 의 형식에 맞지 않는 사소한 오류들 수정 (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3. 공공 데이터 포털에 데이터 업로드

이후 267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데이터 업로드

=> 같은 항목의 데이터 갯수가 약 267개 업로드 됨, 또는 그 이하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이렇게 업로드 된 데이터들과, 업로드 까지의 프로세스를 검사하여 등급을 부여

4.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데이터 필요성 느낌

5. 공공데이터 포털로부터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기존에 올라온 데이터를 수집

6.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 데이터를 통합하고 재 가공하는 과정을 거침

7.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업 시작

개선 프로세스

1. 최초 지자체에서 데이터 취합

2. gooddata.cco.kr 의 형식에 맞지 않는 사소한 오류들 수정

3. 모의품질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데이터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확인

또한 자신들의 품질관리 프로세스 또한 확인 가능

4. 공공데이터 포탈에 데이터 업로드

이후 267개 지자체 ---

일정량 이상 업로드 된 경우, 중간 단계에서 데이터 통합을 시킴 ( ex. 약 20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업로드가 완료된 경우 하나의 파일로 통합, 그 이후에 올라오는 데이터들도 계속하여 통합)

이미 모의 품질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데이터 수준과 프로세스 수준을 알고있으므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품질검사를 따로 대비할 필요가 없음

4.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데이터 필요성을 느낌

5. 공공데이터 포털로부터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기존에 올라온 데이터를 수집

(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의 차이를 인지시켜 데이터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를 줄이도록 함)

6. 데이터 통합 필요 없이 통합된 데이터를 다운받고 자신들의 사업에 맞게 약간의 가공을 거침

7.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업 시작

이때 사용되는 모의 품질 진단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정성적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법인 AHP 기법을 사용하여 각 설문지의 항목에 가중치를 매겨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작

이것과 논외로

데이터 품질 진단 프로세스와, 현재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진단하는 프로세스(?) 를 통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최경일 .....한테 물어보는건 어떨까 싶음

시스템 통합이 최경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ㅇㅇ.